

# 생산직 6천3백여명 부족 ‘인력대란’ 이미 시작됐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인쇄업의 산업현장은 미력하나마 활기를 되찾고는 있지만 경기 외의 문제로 시름이 깊어 가고 있다. 경기가 되살아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기계를 멈춰야 할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인쇄업계는 인력난으로 허덕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여기저기서 사람 구해달라는 얘기가 공통 화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력난에 따라 또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질적인 인쇄업의 인력난이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쇄업계의 인력난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나 지금은 기초 생산인프라가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인쇄물 수출전문업체인 S사는 현재

수출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전 생산라인을 풀 가동해도 모자라는 판에 생산 인력이 없어 인쇄기 1대가 가동 중단된 상태다. 얼마 전까지 물량이 없어 가동률이 감소한 예는 많았지만 지금은 인력이 없어 가동이 중단한 사례가 별로 낮설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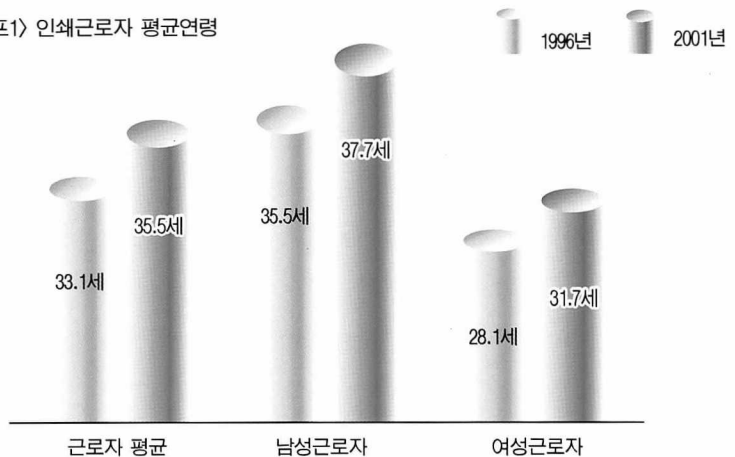
통계청에 따르면 IMF 직후인 98년에 인쇄업의 전체 근로자수는 총 63,151명으로 96년(74,858명)에 비해 11,707명이 감소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 상태인 2000년에는 신규 인력을 포함해 총 68,571명으로

96년 당시에 비해 여전히 6,28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96년 업체당 근로자수가 평균 4.5명이던 것이 2000년에는 4.0명으로 감소했고 특히 오프셋인쇄업은 3.7명으로 96년(5.4명)보다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프리프레스분야는 96년 5.5명에서 2000년 5.7명으로 오히려 증가해 오프셋인쇄분야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쇄분야별 인력수급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IMF이후 인쇄현장을 떠난 근로자들이 제자

〈그래프1〉 인쇄근로자 평균연령



리를 찾아오지 않고 신규인력 양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인력들은 출력업체 증가와 함께 인쇄현장보다는 맥편집, 필름출력업무 등 프리프레스 분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IMF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되돌아오지 못한 채 신규 인력의 양성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인쇄현장 근로자는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쇄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96년 33.1세에서 2001년 35.5세로 조사됐으며 남성근로자들은 96년 35.9세에서 2001년 37.3세로 고령화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근로자의 경우 이보다 높은 연령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프1>

실제로 K인쇄사의 경우 생산 기술인력이 30명이나 분포하고 있으나 30세미만은 아예 없을 정도로 젊은 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퇴색해버리고 업체간 스카웃 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는 있다.

을지로에서 인쇄기장으로 오랜 잔뼈가 굵은 K기장은 “하루에 두세번씩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있으며 요즘 이 일대 대부분의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스카웃 제의는 올 들어 을지로 일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쇄근로자들의 근속연수도 길어야 3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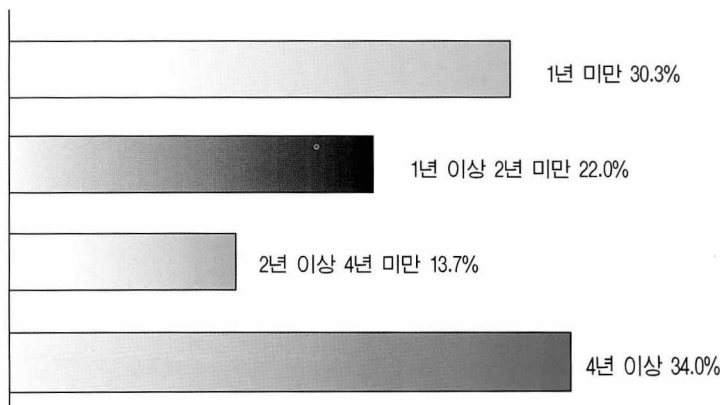
대체로 인쇄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년미만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

## 고령화 뚜렷 ... 「맥」 끝길판 스카웃 과열, 임금만 부추겨

으며 1년이상 2년미만은 22.0%, 2년 이상 4년미만은 13.7%로 근로자들의 66.0%가 4년안에 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남성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7년 4.6년에서 2001년 3.1년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2>

<그래프2> 인쇄근로자 근속연수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인력도 크게 줄고 있다. 양성된 인력들도 인쇄현장보다는 프리프레스분야를 선호하고 있어 인쇄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직업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연간 900여명에 달하는데 인쇄업체의 생산현장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몇 년전만해도 30% 정도로 근간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아예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게 교육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큰 업체의 인사담당자들도 요즘 교육기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졸업생을 보내 달라고 사정하고 있지만 결과는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스카웃경

쟁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로 인한 폐해로 경력자들의 임금이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대로 따라가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대책도 없다보니 스카웃을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당장 인력수급이 필요 없는 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워낙 스카웃 바람이 거세 기존인력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일감을 빼앗기는 것보다 인력을 뺏기는 게 더 두렵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에서 지금의 인쇄업계 인력난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